연예뉴스 스테이션

이경실 "남편 성추행 의혹 재판서 시비 가린다"



방송인 이경실(사진)이 남편 최모 씨가 연루된 성추행 사건에 "재판으로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8일 소속사를 통해 밝혔다. 앞서 서부지방검찰청은 "지인의 아내인 30대 가정주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명 개그우먼의 남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각종 루머가 확산되자, 이경실은 실명을 공개하고 사건의 전후 과정을 밝혔다. 이경실은 "고소인 A씨는 남편과 10년 동안 사업을 함께 한 지인의 아내"라며 "일부 보도처럼 일부러 자동차에 동승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운전기사의 진술도 덧붙였다. 또 "A씨가 거짓 내용을 퍼트려 가정불화까지 조장했다"고 맞섰다. 이에 A씨는 최씨가 신체 일부를 만졌다며 강제 추행을 주장하고 있다.

한그루, 명문대 오빠 등 가족사 거짓말 논란



11월8일 결혼하는 연기자 한그루(사진)가 거짓말 논란에 휘말렸다. 7일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한그루의 의붓언니'라고 밝힌 한 여성이 쓴 글이 발단이 됐다. 이 여성은 "한그루가 말해온 '명문대를 다니는 언니들과 오빠, 모델 출신의 엄마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내가 대학에 입학한 해에 부모가 이혼했고 그즈음 아버지가 재혼해 초등학생쯤 되는 딸을 데려왔다"고 밝혔다. 이 딸이 한그루라는 설명. 이어 "한그루와 가족이 아니고, 아버지의 재혼으로 모두 큰 상처를 받고 살아왔다"고 했다. 한그루는 데뷔 초부터 "서울대 출신의 언니와 고려대를 다닌 오빠가 있다"며 "엄마는 모델 출신"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새 아버지의 이혼 전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현석, YG사옥 무단 증축 건축법 위반 입건

YG엔터테인먼트(YG) 양현석 프로듀서가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됐다. 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현석이 관할구청의 허가 없이 서울 합정동의 YG사옥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8월 마포구청 도시경관과는 양현석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해당 건물의 7층과 옥상을 추가 증축한 혐의다. 양현석은 서울 서교동에 위치한 본인 소유 건물 내 주점의 일부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동건·고소영 부부, 미혼모 돕기 등 1억 기부



배우 장동건 고소영 부부(사진)가 미혼모와 입양대상 아기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8일 대한사회복지회는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5일 미혼모와 입양대상 아기들을 위해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며 "후원금은 미혼모와 입양대상 아기들의 행복 찾기에 소중히 쓰겠다"고 밝혔다. 고소영은 2010년부터 6년 동안 미혼모 시설을 꾸준히 찾으며 관심을 기울여왔다. 서울영아일시보호소에서도 장기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도' 내달 하와이국제영화제 개막작 선정

영화 '사도'가 11월12일 개막하는 제35회 하와이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1981년 시작한 이 영화제는 세계200여 편의 영화를 상영하는 북미 최대 규모 영화제 가운데 하나다. '사도'는 이달 16일 북미 지역에서도 개봉한다. '사도'는 내년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영화상의 외국어영화상 부문에 한국 대표작으로 출품된 상태. 예선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하와이국제영화제는 북미 영화 관계자들에게 작품을 소개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공연 랭킹

10월 2일~10월 8일 자료:인터파크 1위 공연 정보보기

순위	공연명	주연
1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유준상
2	태양의 서커스 〈퀴담〉	-
3	뮤지컬 〈신데렐라〉	엄기준
4	뮤지컬 〈레미제라블〉	정성화
5	뮤지컬 〈원스〉 오리지널 내한	-
6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김소현
7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류정한
8	뮤지컬 〈고래고래〉	손호영
9	뮤지컬 〈레베카〉	류정한
10	연극 〈작업의 정석〉 - 대학로	김동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김순옥 작가가 드라마 '내 딸 금사월'을 통해 앞서 집필한 '왔다 장보리'의 인기를 재현하고 있다. '내 딸 금사월'의 박세영(왼쪽)은 마치 '왔다 장보리'에서 활약한 이유리를 연상케 하는 악녀 연기를 펼친다. 사진제공 | MBC

참을 수 없는 막장의 유혹…김순옥표 드라마

'내 딸 금사월' '왔다 장보리'의 공통점

친딸과 양딸이 뒤바뀌는 설정 유사
출생의 비밀·선악 대립 단골 소재
기발한 캐릭터 네이밍도 재미 요소



참을 수 없는 '막장 드라마'의 치명적인 유혹이 또 다시 펼쳐지고 있다. 불륜, 복수, 살인, 배신 등 온갖 자극적인 소재를 모아놓고도, "막장"이라고 비난할 틈조차 주지 않으며 휘몰아치는 MBC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금사월)의 이야기다.

대본을 쓴 작가가 누구인지 모르더라도, '금사월' 한 회만 봐도 지난해 방송된 '왔다 장보리'(장보리)를 떠올리는 시청자들이 많다. 그만큼 소재와 내용 전개 방식이 닮았다. 그래서 '왔다 금사월'이라 불리기도 하고, 김순옥 작가(사진)의 '복수 2탄'이라고도 한다.

'장보리'는 35% 시청률로 지난해 최고시청률 드라마로 기록됐다. 최근 '금사월'이 방송 10회 만에 20%를 돌파하며 '장보리' 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두 작품의 공통점을 소개한다.

●출생의 비밀…친딸과 양딸이 뒤바뀐 운명

'금사월'도 어김없이 출생의 비밀이 등장했다. 여기서 그치면 '김순옥표 드라마'가 아니다. 주인공인 친딸과 양딸이 뒤바뀌는 얄궂은 운명이 추가됐다. '금사월'에서 백진희가 박상원과 전인화의 친딸이다. 하지만 양딸인 박세영의 계략으로 고아가 된다. 그 사실을 모르는 전인화는 백진희를 구박하고 미워한다.

'장보리'에서도 오연서가 안내상과 김혜옥의 친딸이었지만, 양딸인 이유리가 자신이 입양되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일삼는다. 김혜옥은 오연서에게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기까지 했다. 제작진은 "캐릭터나 스토리상 전혀 다른 분위기"라고 하지만, 이런 극적 장치를 통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천사와 악마…선악 대립으로 권선징악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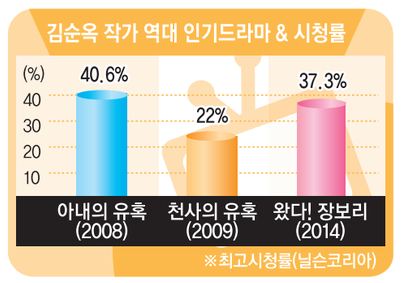
공통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 짓고 대립하는 구도가 같다. 선한 인물은 악인들의 극악무도한 행동에도 무너지지 않고 끝내 일어선다. 반면 악인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 악행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는다.

선한 인물보다 악녀가 돋보이는 것도 똑같다. 악녀들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식이다. 김 작가가 애용하는 악녀들의 '분노 표출법'이다. '장보리'의 이유리가 그랬다면 이번엔 박세영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결론은 '당연히' 권선징악이다. 김 작가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선악을 극명하게 대립시켜 연속으로 극적인 상황을 풀어간다. 이를 통해 악한 인물이 파멸했을 때의 통쾌함을 배가시키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독특하고 코믹한 주인공 이름

기발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금사월, 임시로, 강찔래, 소국자, 장보리, 연민정…. 모두 김 작가 드라마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이름이다. 장난스러운 느낌이 강하지만 김 작가의 작품 안에서만큼은 재미요소다.



복수, 불륜 등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다보니 분위기가 자칫 무거워질 수 있다. 독특하고 코믹한 주인공 이름은 이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금사월'에서 소국자(박원숙)는 며느리에게 고된 시집살이를 시키지만, 때로는 이름에서 오는 코믹함이 캐릭터의 빈틈을 보여주며 인간미도 느끼게 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만재도 브로맨스' 차줌마·참바다 씨의 귀환

9일 '삼시세끼-어촌편2' 첫 방송
신효정PD "농익은 노부부 닮았다"

약 7개월 만에 다시 만난 차승원과 유해진이 이번에는 어떤 조합을 보여줄까.

차승원과 유해진은 9일 첫 방송하는 케이블채널 tvN '삼시세끼-어촌편2'에서 재회했다. 올해 초 방송한 시즌1에서 기대 이상의 호흡을 보여주며 금요일 밤을 평정했던 터라, 이들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뜨겁다.

이번 시즌2의 촬영은 지난 시즌과 같은 촬영지인 전남 신안군 만재도에서 이뤄졌다. 시즌1에서 게스트로 출연했다 고정멤버로 합류한 손호준까지 가세해 '브로맨스'(남성간의 조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시즌1에서 차승원은 요리 실력이 뛰어나면서 잔소리가 많은 '아줌마'의 모습이었고, 유해진은 그런 차승원을 피해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둘의 상반된 캐릭터가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의 큰 인기요인이 됐다. '톰과 제리' 같은 둘의 관계는 시즌2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연출자 나영석 PD는 "차승원이 '유해진화'됐다"고 했고, 신효정 PD는 "두 사람의 모습이 농익은 노부부를 닮았다"고 소개했다.

시즌1이 '앞마당'이라는 다소 제한적인 공간에서 펼쳐졌다면 시즌2는 반경을 넓힌다. 최근 통발을 들고 있는 차승원과 미역을 두 손에 쥔 유해진이 생동감 넘치는 동작과 표정으로 바다에 입수한 모습이 담긴 포스터가 공개돼 궁금증을 갖게 했다. 두 사람은 어부의 생활을 보여주고, 현지 주민들과 어울리는 기회도 늘려 '만재도 주민'과 같은 모습을 공개한다. 시즌1의 배경이 '만재도의 겨울'이었다면, 이번 시즌에서는 여름과 가을 사이의 만재도를 보여준다.



차승원(왼쪽)과 유해진이 다시 뭉쳤다. 9일 시작하는 '삼시세끼-어촌편2'에서 이들이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제공 | tvN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아시아 최대 영화제 명성 재확인

10일 폐막작 '산이 울다'로 축제 마무리
송강호 꼽 스타 우뚝…필름마켓도 대박

■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결산

20주년에 어울리는 속이 꽉 찬 영화축제였다.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10일 폐막작 '산이 울다' 상영을 끝으로 10일간의 영화 축제를 마무리한다. 규모도, 관객 반응도, 참여한 게스트의 면면에서도, 20년 동안 아시아 최대 영화제로 인정받은 저력을 과시했다. 지난해 외압논란과 그에 이어진 지원금 삭감으로 내홍을 겪었지만 이런 과정이 오히려 내실을 갖추는 밑거름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는 거의 모두 부산에 집결했다. 그 가운데 단연 화제는 송강호와 유아인. 영화 '사도'의 주역이기도 하다. 유아인이 부산에 머무는 내내 함성을 몰고 다녔다면, 1일 개막식 진행을 맡은 송강호는 안으로, 밖으로 영화제를 채웠다. 때마침 데뷔 20주년을 맞은 그는 활동의 의미를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했다.

송강호는 영화제 기간 열린 아시아캐스팅마켓이 올해 처음 신설한 '커튼콜'에 선정돼 그 힘을 과시했다. 아시아 대표배우를 한 명씩 선정하는 이 자리에 1회 수상자로 오른 그는 "1000만이라는 숫자보다 많은 관객에게 인정받고 격려 받는 영화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세계 영화계를 화려하게 장식해온 관록의 배우들은 부산을 무대 삼아 각자의 가치관을 꺼내, 관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겼다.

뉴커런츠 부문 심사위원으로 부산을 처음 찾은 나스타샤 킨스키는 "한 국가의 국민이 아닌 세계인이라는 마음으로 관객에게 여운이 남는 영화를 선택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의 예술영화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넘나드는 영국 출신의 틸다 스윈튼은 "영화로 관객을 놀라게 하고 싶고, 그 기회가 한국이 되길 바란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설국열차'에 이어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도 참여하는 그는 이제 한국영화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었다.

6일 폐막한 아시아필름마켓이 거둔 성과 역시 지나치기 어렵다. 부산국제영화제 관계자는 8일 "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탐정', '성난 변호사'를 포함해 약 30여 편을 해외에 판매했고, 쇼박스도 '암살', '사도'를 통한 해외 판매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배우 강수연의 활약 역시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영화제 개막 이틀날 만난 강수연 공동집행위원장은 "개막 전날부터 하루를 10분 단위로 나눠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영화 전공 대학생들이 모인 자리부터 영화계 원로들이 참여한 자리까지 빠짐없이 참여해 영화제를 매끈하게 이끌었다. 개막에 앞서 "관객이 공감하고 누구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영화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각오를, 그대로 실천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20년간 이어온 저력을 증명했다. 1일 배우 송강호와 아프가니스칸 여배우 마리나 골바하리가 진행한 개막식으로 시작한 영화제는 영화인과 관객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완성됐다. 해운대(부산) | 뉴시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